

특별선교주일

미원주민선교주일



연합감리교회는 미원주민들이 우리 사회와 교회에 기여한 은사와 공헌을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미원주민의 삶과 문화에 대한 이해의 격차가 있음을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미원주민 부족들의 신성함, 그들의 언어, 고유한 정체성, 및 교회와 세상에 대한 그들의 공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드린 특별선교헌금은 연합감리교회 각 연회 내에서 미원주민 사역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일을 후원하는 한편, 안수 및 인허받은 목회자로 섬기고자 하는 미원주민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미원주민선교주일



미원주민선교주일 헌금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아래와 같은 중요 사역을 지원합니다:

- **미원주민선교주일에 모금된 기금의 50%는 연회 내에서 미원주민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각 연회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원주민 사역을 옹호하며, 미원주민 문화와 역사, 전통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미원주민선교위원회(CONAM)가 있습니다. 미원주민선교위원회는 또한 미원주민선교주일 헌금 배분을 관장하고, 미원주민선교주일의 홍보 및 연회의 원주민 사역을 감독합니다.
- **모금된 기금의 25%는 인가된 신학교에서 안수 또는 인가받은 사역을 추구하는 미원주민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원됩니다.** 이 장학금은 미원주민 목회자 및 훈련된 전문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고등 교육자들을 발굴, 채용하고 목회 현장에 계속 남게 하는 노력을 지원합니다.
- **모금된 기부금의 25%는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할당됩니다.** 이 기금을 통해 UMC는 기존의 원주민 사역 단체와 협력하여 미원주민 커뮤니티를 위한 새로운 사역들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멘토링 프로그램, 동료 지원 시스템, 경제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지원, 새로운 리더를 양성하는 전통 풍습의 활성화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함께 미원주민들의 목소리와 사역을 전 지구적으로 기념합니다.

후원 방법:

다.체크 메모난에 “**미원주민선교주일**”을 적어 소속 교회에 헌금하세요.

donate.gcfa.org/NAMS 에서 온라인으로 후원하시거나 정기 후원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